

‘서울불교’ 가꾸기 우리에게 맡기세요

서울특별시의회 불자의원회 활동 시작

시의회 불자의원회가 처음으로 창립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불자의원회는 3월 25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본격적인 불자회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창립법회 서울시의회 불자의원회는 지역 의회에서 최초로 결성된 불자의원 모임으로, 앞으로 타 지역에 신영선 의원, 총무에 부두원 의원을 선출했다. 불자의원회는 이후 5개월 간 회원 모집에 들어가, 현재 23명의 회원이 활동 중에 있으며,

초대 지도법사에 경기 남양주 봉선사 주지 일면 스님을 위촉했다. 이날 출범한 불자의원회는 우선 정기적인 신행활동 기반 조성부터 마련할 계획이다. 매달 1회 정기법회 봉행을 물론, 서울시청 불심회와의 합동법회도 추진한다. 또 불자의원 소속 구의 전통사찰을 순회하는 순례법회를 열어, 지역 사회와의 교류활성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특히 불자의원회는 불교 관련 의정활동을 강화한다. 현재 시의회 산하 문화교육상임위원회에 활동 중인 불자의원 5명을 중심으로, 1백여 서울시 전통사찰 보존·관리를 위한 의정활동을 적극

적으로 벌인다. 또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서울문화유산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활동도 펼친다. 이를 위해 연행 1억 6천만 원인 연등축제 시 지원에 25% 증액, 2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시의회에 상정할 방침이다.

매월 정기법회 등 신행기반 조성

‘연등축제’ 서울문화유산 정착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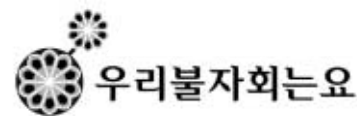
산하문화재단·불자 국악인 등 지원

불자의원회는 이와 함께 불교문화 발전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올 상반기에 예정된 서울시 산하 문화재단의 확대·개편에 발맞춰, 불자

국악인·인간문화재 등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불자의원회 신영선 회장은 “서울시 불자의원으로서 부처님의 자비광명을 불자들은 물론, 서울시민들에게 널리 비출 수 있는 불자의원이 되겠다”며 “앞으로 전통사찰 보존에 힘쓰고 불교계 뜻을 담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불자의원회가 지난 3월 25일 서울 조계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하고, 서울시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한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법륜불자교수회

법륜불자교수회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재직하고 있는 불자교수 들을 회원으로 1988년 10월에 창립했습니다. 청도 운문사에서 발원하고, 대구 서봉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 지 15년이 흘러 현재 250여명의 불자교수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이러한 불자교수회의 발전 뒤에는 직지사 조실 관음 큰스님, 운문사 명성 학장스님, 일진스님 그리고 지금의 8대 집행부에 이르기까지 활동하신 여러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불자회 집행부는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그리고 2개의 위원회 위원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상적인 조직과 다르게 불교 문제위원회와 불교문화재위원회를 두어 불자교수 회원의 전공을 집중하여 불교발전에 기여하려 하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기록이 기도 하지요. 우리 불자회는 올해 지금까지 발간된 회보 중 1호에서 20호까지의 합본집 출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정기적인 활동 외에 2권의 단행본 <세간과 출세간의 만남>과 <불교와 학문의 만남>을 출판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는 동화사에서 ‘대구불교발전을 위한 동화사의 활용방안’이란 주제로 불교토론회를 개최했으며, 2001년에는 동화사 개산을 기념하여 ‘팔공산 동화사의 역사와 사상’이라는 주제로 불교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우리회는 이와 같은 정기적 및 비정기적 행사를 통하여 안으로는 자신 을 찾고 밖으로는 불교전파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우리 법륜불자교수회도 다른 불

산하에 2개 전문위원회... 불교발전 노력

학술·토론회 등 개최, 젊은 불자양성 모색



◇지난해 1월 속리산 법주사에서 열린 동계 산사체회에서 법륜불자교수회 회원들이 법주사 유물 스님과 법담을 나누고 있다.

고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법륜불자교수회는 ‘회원 상호간의 유대강화와 불교 신생활을 통한 보살도의 실천’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법륜불자교수회는 정기적 행사인 매년 4차례의 성지순례법회와 2회의 수련회를 통해 크스님들의 법문, 참선 그리고 기도로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기 위해 정진하고 있습니다. 또 년 2회 회보를 정기적으로 간행하여 현재 21호까지 발행했습니다. 회보에는 주로 크스님법문, 회원들의 전공학문과 불교를 접목한 글 그리고 각종행사의 사진을 실었기 때문에 회보는 법륜불자교수회의

교 신행단체와 같이 젊은 회원이 거의 없고, 장년층의 회원 교수님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불자회 가 진행하는 각종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연령의 회원확보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가까이는 80년대에 대학원 석사 학위를 하던 불교 청년회와 대불련의 활성화가 과제인 것입니다. 우리회는 보살의 대원력인 ‘상구보리 하화중생’을 모토로 안으로는 깨달음의 지혜를 구하고, 밖으로는 한국불교의 미래를 개척할 새로운 젊은 불자양성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이정희 총무이사



언론사 불자련 첫 합동수계법회 (회장 김진평, KBS 불교연구회 회장)는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수원 용주사에서 첫 합동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수계법회에서 연합회 회원 30여 명은 용주사 주지 정락 스님을 계사로 계첩을 받았다.

인천국제공항불자련 창립

법무부·문화재청·국가정보원 등도 추진

인천국제공항청사에 불자연합회가 창립된다. 인천국제공항청사 경찰대 불자회 전인배 회장은 공항에 입주한 15개 정부기관을 비롯한 국내외 민간 항공사, 용역 회사 등으로 구성된 공항불자연합회가 빠르면 이달 말경에 결성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불자회 창립이 구체화되는 곳은 인천공항공사, 법무부, 문화재

청 등 3개 정부기관이며, 국가정보원, 국방부, 정부합동청사, 서울지방항공청, 세관 등의 정부기관도 불자회 창립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21일 공항 내 교통 센터 내에서 봉행한 경승실 개원법회가 공항 내 개별 기관불자회 창립 움직임에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기관불자회 창립 준비모임은 이달 말까지 ‘가칭인 천공항 불자연합회 창립준비위원회’를 발족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개별 기관불자회 창립 실무를 맡고 있는 인천공항공사 박용재(전 산실) 과장, 공항 파견 법무부 변호사 윤반장(출국3과), 문화재청 김형우 문화재감사위원 등은 이달 중순경에 만나,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확정지을 계획이다. 김철우 기자

우리 모임에선

병원불자련, 의료봉사·연합수련회

병원불자연합회(회장 이주호)는 12~13일 이틀간 경북 구미 영명사로 제6차 의료봉사를 떠난다. 내과·안과·물리치료과·한방과 등 5과 80여 명의 의료진이 참가한다. 문익은 의료봉사단 앙동선(국립서울병원 치과장), (02)2204-0110

철불법, 무사고기원·천도법회

철도청 불교단체협의회(의장 이용일)는 무사고기원 철도불자 연합법회 및 천도법회를 19일 경북 구미시 도리사에서 봉행한다. 이번 천도법회에서는 본청 불자회 등 20개 단체 400여명이 참가한다.

단체장



대구지하철참사 추모법회

강재형 대구광역시청 유마회장은 3월 22일 대구 동화사에서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희생자를 위한 추모법회를 봉행했다.



‘달마관심론’ 교리강좌

윤주화 한국은행 불자회장은 3월 28일 본관 시청각실에서 강화도 삼장포교원 정우 스님에게 <달마관심론> 강의를 들었다.



백운사서 부부동반 법회

조남희 총부 육전경찰서 불교회장은 3월 29일 육전 백운사에서 부부동반 법회를 열고, 백운사 주지 범명 스님에게 법문을 들었다.



천수경 독경법회 봉행

이영숙 한국전력 한일병원 반야회장은 17일 병원 강당에서 회원 3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천수경> 독경법회를 봉행한다.

불제 연등용 전선 (케이블)

사찰용 전구 3W, 5W, 10W·건전지용 초·정사초롱 및 손잡이대

등 간격 22cm, 30cm, 50cm, 1M, 2M, 3M, 5M, 10M 기타주문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 지겠습니다.”

사찰전구

- ▶ 불계대원 고추전구, 인제전구(정품)
- ▶ 종류 : 3W, 5W, 10W
- ▶ 일반 전구에 비하여 전구알이 견고하여 잘 깨지지 않으며 월라멘트 6배(특 월라멘트)로 빛이 월등히 밝고 절전 효과가 있다.

불제 건전지용 초

- ▶ 정사초롱 및 연등용으로도 사용이 편리하며 4월초파일날 행사, 각종 연등행사(탐돌이, 방쟁)등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는 장점이 있어 공연행사 등 이동에 적합합니다. (건전지 사용)



꺼지지않는 초

우리 가족은 특별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특별한 방법! 지금 전화주세요!



국내최대 오가피 제과사 성 광 수氏

“수신토종오가피 수신헌사토종오가피”

월드컵 축구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아시안게임 국가대표선수들이 먹었습니다. 직접 재배한 토종오가피만을 사용합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국내최대오가피농장에서 생산합니다.

천사같이 소중한 우리 어린이를 위한 선물! 옛사람들은 아이들에게 오가피를 먹었습니다. 손주를 위한 할아버지의 고집으로 어린이들의 입맛에 맞춰 만든 - 수신헌사 토종오가피.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택입니다.

- 바로 수신토종오가피입니다. 이제 우리 아빠,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수신토종오가피를 준비해주세요.

지금 전화주세요.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드립니다.

(02) 447-0047

불제대원기업

구입문의 (031) 986-0277~8 구입문의 (02)2266-2634 · 2263-2638
구입문의 (032) 582-6235-6 (01)11630-7092
http://www.bulje.co.kr 주소 : 경기도 김포시 곁포동 389-43